

2004년 2/4분기 제직회 열려

청년부 15명, 8월 8일 중국 비전트립 계획

7월 14일 수요일예배가 끝난 후 중 강당에서 당회장 문동학 담임목사의 사회로 제직회가 열렸으며, 재정보고 및 위원회와 목회보고가 있었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낭독하지 않고 유인물로 받기로 하였다. 우리 교회의 재무자료가 사무국에 항시 열람토록 공개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열람하고 문의할 수 있음을 공지한후 2/4분기 제직회를 마쳤다.

12개 분야 제자의 삶,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생활 법률, 출애굽기, 젊은 어머니 학교, 중보 기도학교, 그리스도인의 기초 다지기, 그리스도인의 정신 건강, 누가복음, 말씀묵상, 믿음의 여인들 등을 4개월 동안 본인이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다.

수료자들은 주님의 교회에 반석이 될 것을 다짐하며 그 동안의 피로가 싹 가신 듯 수료증과 상품 그리고 꽃다발을 들고 기쁨과 감회에 벅차 주님께 영광 돌렸다.

청년, 8월의 중국선교위해 기도로 시작

월 1일(주일)부터 8월 8일(주일) 중국비전트립을 떠나는 청년들은 기도모임에 한창이다. 중국을 떠나는 15명의 청년들은 매주 월,화,수,목,토요일날 교회 1층 예절실로 모여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기도시간을 가진다. 2시간 정도의 기도와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청년2부 회장으로 부터 시작해 기도인도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 (4면에서 계속)

14일 수요일, 1학기 양육과정 수료



주님의 교회는 양육과정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금번 양육과정을 7월 14일 수요일예배가 끝난 후 문동학

담임목사가 000명에게 수료증과 상품을 수여 하였다. 목사님은 수료식에서 이제 성숙된 크리스찬이 되어 각 분야에 지도자가 되어 주님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셨다.



암투병중인 성도가 지난 주일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레인보우의 학년별 수련회

7월 11일, 통합아동부 예배는 활기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시작됐다. 예수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 드리는 아이들을 보면 언제나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항상 아이들이 기다리는 게임 시간이 되면 팀을 나누어 풍선을 가지고 배구를 한다. 서로 질세라 자기의 팀을 응원하고 열심을 내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이번 주는 '하나님이 진짜예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다.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단에 불을 내려주신 건 오직 하나님이셨다. 이 성경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배웠다. 곧 이어 있을 여름 수련회에서 통합아동부는 학년별 부서 수련회를 참가하게 되며, 통합아동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카페 (<http://cafe.daum.net/rainbow4kids>)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번의 여행을 소망하며

바이블 네비게이션 성경공부는 매주 금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지하 작은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창현 목사님과 28명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신약 성경 속으로의 여행을 함께했다. 신약성경이 쓰이게 된 목적과, 시대적 배경, 정치, 종교, 문화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고,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서신서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한권 한권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가야 할지 배우게 되었다. (4면에서 계속)

문희곤목사,

'예루살렘 예수행진2004'를 앞두고 두려움을 설교

7월 25일 목요일모임에는 예수전도단 대표이자 주님의교회 협력목사인 문희곤 목사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예수전도단에서 8월 7일에서 10일, 3박 4일의 일정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행진하게 된다. (2면에서 계속)

태백 황지 중앙교회로부터 온 편지 나눔의 물품 알고 정선에서도 찾아와

북지선교부는 6월 나눔의 물품 14박스를, 12박스는 태백 황지 중앙교회에 보내고 2박스는 서울 조선족 교회에 보냈다. 다음 글은 황지 중앙교회에서 보내온 감사의 글이다.

(아.나.바.다. 나눔장터)

안녕하세요? 저희는 황지중앙교회 회당의 살림터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 교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많은 성원에 힘입어 저희 회당의 살림터에서 주관하는 아나바다 나눔 장터가 날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황지중앙교회는 그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표어 아래 보다 적극적인 사회선교를 모색해오다가 '태백 회당의 살림터'를 세우고 '녹색

가게' (유기 농산물 판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녹색가게가 중심이 되어 실시된 것이 아나바다 나눔장터 사업입니다. 이 아나바다 나눔장터의 사업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활용, 재사용의 생활문화 정착과 헌 의류를 수거하여 지역의 저소득 가정에게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친 환경적인 삶을 살도록 안내한다.

둘째 과소비 문화에서 벗어나 실속 있는 소비문화를 권장하고 내가 필요치 않는 물건들은 이웃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나눔의 문화가 실천되도록 홍보하고 권장한다.

셋째 정기적으로 매월 둘째 토요일 시내에 있는 황지연못에서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모든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열린장터를 만든다.

이상의 취지에 황지중앙교회는 매년 연중행사로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실시하다가 2002년부터 태백시청의 도움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장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재가 난 곳까지 찾아가 장터를 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아나바다 나눔장터에서 취급한 물품들은 처음에는 의류중심이였으나 지금은 가방, 신발, 인형, 구두, 넥타이, 각종 생활필품에 이르기까지 그 품목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산물과 환경 세제를 같이 판매함으로써 아나바다 장터는 이제 환경운동으로까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류는 1000원에 판매되고 나머지는 경우에 따라 200원, 500원 등에 팔리기도 합니다. (4면에서 계속)

리더교육, 조모임 전반기 평가토의 청년부 임원, 리더 모임

청년부 임원과 리더들이 7월 11일 청년부활동을 모두 마치고 신천 먹자골목에서 삼겹살을 먹으며 상반기 조모임을 마치는 뒤풀이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청년부 활동을 위해 선발대가 되어 길을 닦고 후발대가 되어 뒷정리를 담당했던 임원과 주일마다 오전 11시에 모여 리더교

육을 받으며 조모임을 이끌어왔던 리더들을 위해 마련한 조출한 저녁시간이었다. 윤은성 목사님과 유상렬 전도사와 최상인 부장집사도 함께하였고 '많이 먹어라' 격려하여 모두들 흐뭇한 얼굴들이다. 늘 가는 찻집으로 옮겨 무리를 나눠 토의시간을 가졌다. 조모임, 리더교육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모의토의를 거쳐 나온 결과들을 발표했다. 리더교육을 받고 조모임에 가서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교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뒷받침해주는 기도의 후원에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의 보강점도 돌아보았다. 윤은성 목사가 청년부 후반기 비전을 전해 앞으로 모임이 어떻게 채워질지 흥미진진했다.

7교구, 빗속에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

7월 16일 금요일.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7교구 수련회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로 시작되었다. 오후 3시에 출발하려고 했지만, 때마침 집중호우는 글자 그대로 들이붓듯이 퍼부었다. 출발하려 했던 많은 교우들이 과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런 말을 하였다.

또한 지금 가고 있는데 길이 너무 막히니 좀 기다려 달라는 전화는 계속 이어졌다. 먼저 출발했던 선발대로부터는 미사리근처인데 비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가기가 어렵다고 교회로 돌아오면 안 되겠느냐는 연락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는 이 후에 수련회를 통해 내려 주신 은혜의 폭포수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남양주에 있는 진광전원교회(광릉수목원 인근)는 주위에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와 바람 속에 있었다. 적막하리만치 고요한 분위기는 빗소리를 더 크게 들리게 만들었다. 첫째 날, 퇴근을 하고, 또한 아이들이 학교 끝마치는 대로 부지런히 수련회 장소로 모였다. 도착해서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한 뒤, 조별 모임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교우들과 만나 교제하며 함께 신앙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나뉜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양파처럼 나를 덮고 있는 40개의 핵심적인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나누었다. 또한 내가 이 다음에 죽는다면 나의 묘비에 이 말씀을 남기면 좋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오히려 현실에 더욱 충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묘비에 새기고 싶은 성경구절을 나눌 때 서

로에게 뜻대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나누었다. 계속된 저녁 프로그램에서 조별로 모여 나누는 이야기들을 이젠 전 교구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고, 역할극을 하며 우리의 현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 역할극은 교구 식구가 텔런트로 데뷔하는 등용문이었다. 성도들의 감춰진 기가 발산되어 웃음이 멈추지 않는 포복절도의 시간이었다. 또한 서로 서로의 역할을 바꾸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볼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 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어서 문춘자 권사가 주님의 교회에서 배운 호스피스 사역을 작년에 돌아가신 남편에게 하게 된 사연을 소개하며 마지막까지 남편을 돌보는 간증은 많은 교우들의 심금을 울렸다. 마지막으로 7교구 이 호 목사의 말씀과 참석한 교우들의 합심기도는 그동안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시켰고, 주님의 어루만짐을 체험하는 눈물의 영적 만남의 장이 되었다.

둘째 날은 아담한 전원교회 본당에서 집회를 가졌다. 단층으로 큰 경사지붕과 예쁜 종탑이 있어 무척이나 아름다운 예배당이었다. 찬양을 부르며 참석한 교우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 주시는 뜻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수련회에서만 가능한 충분한 찬양과 긴 시간 동안의 말씀은, 오히려 참석한 교우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느끼게 되었다. 짧은 교구 수련회였지만, 교구 식구들이 함께 집중력 있게 수련회를 한 덕분에 많은 분들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

“새벽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수전도단, 젊은이 복음화에 기여한 대표적 선교단체
136개국, 12000명 전임사역자, 국내에 20개 지부를 두고
선교활동을 펴

예수전도단은 80년대와 90년대 CCC(한국대학생선교회), 조이선교회, IVF와 함께 우리나라의 젊은이 복음화에 기여한 대표적 선교단체로, 청소년과 대학생 선교, 제자훈련, 세계선교에 큰 영향을 끼쳐 왔다. 특히 예수전도단은 초창기부터 '찬양과 경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으며, 수많은 찬양사역자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단으로 규정된 이초석 씨의 '땅끝예수전도단(한국 예루살렘 교회)은 이초석 씨가 세운 이단교회로 반포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상가건물 위에 있는 '땅끝예수전도단' 광고판이 그 단체의 것이다'와 혼동하여 오해를 받기도 했으나, 예수전도단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미국연합장로교(당시 남장로회) 파송 선교사인 David E. Ross(한국명 - 오대원목사) 선교사에 의해 한국 젊은이선교를 목표로 1973년 말에 설립되었다. 그 후 오대원목사는 은퇴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 교포 2세들을 대상으로 '안디옥커넥션(북한 선교를 위한 프로젝트)'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오대원목사를 뒤이어 주님의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목사인 홍성건목사가 대표로 있다가 현재는 주님의교회 협력목사인 문희곤목사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예수전도단은 1980년에 국제선교단체인 'YWAM(Youth With

A Mission)'과 연합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다. YWAM(Youth With A Mission)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로렌 커닝햄 목사에 의해 1960년 설립되었다. 현재 전세계 136개국 650여개 지부에서 1만2천 여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20개 지부 및 제주도 에 위치한 열방대학에서 750여명의 전임 사역자들과 국외에 파송된 260여명의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다.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 Korea)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모든 세대들을 일으켜 온 세계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재난지역과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곳곳을 찾아가 구제 및 의료봉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예수전도단은 정기적인 모임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갖고 있는데, 2004년 11월 6일부터 주님의교회와 연합하여 30대와 40대를 위한 '목요모임'을 시작하였다. 주님의교회 중예배실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목요모임은 찬양과 경배, 말씀, 간증 및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모임이며 강남과 송파지역 직장인, 청장년들과 주부들에게 커다란 영적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교구 여름 수련회

7월 16일 오후 장마비가 장대같이 많이 오는 중에도 122명의 형제자매가 양평관광농원에서 1박2일의 여름 수련회를 가졌다.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라”의 말씀으로 정희성 목사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여 한드현 집사와 이 열 집사의 일사불란한 진행으로 하였으며, 첫날 장애인 마갑영 집사 자매의 간증에 이제 나도 주위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성령충만함으로 오늘을 산다는 간증, 그리고 최 연장자이신 안나회의 “날 구원해주신 주 감사”를 특송을 하였고, 조성곤 집사가 리더가

되어 기도하고 찬양 그리고 울동이, 전 형제 자매가 하나 되어 우리가 온데 계신 여호와를 새벽 2시까지 송축하였다.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로 시작하여 농원 대강당에서 수 십 종의 프로그램속에 성령충만하여, 푸짐한 경품과 상품으로 한나절을 낙원 속에서 보내고 3시간여에 걸친 소그룹 활동을 “대화”를 주제로 강의와 실습을 하였다. 마무리 순서에 유치부의 찬양이 어른들을 감동시



키는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름 수련회였다.

5교구 수련회를 다녀와서

5교구는 7월16일에서 17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한 십자수 기도원으로 여름수련회를 다녀왔다.

거세게 내리는 빗속을 뚫고 조심스러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향했다. 십자수 기도원은 기도원 본당을 배경으로 산과 시냇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곳이었다.

첫날은 공동체 놀이와 성경퀴즈, 게임, 놀이를 통해 교구식구들의 얼굴을 조금씩 알게되고 공동체라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갔다. (4면에서 계속)

오늘 기도



...여호와와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하게 거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막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에게
사이에게 전하게 하시리이다.

(1면에 이어서)

문화곤목사,

‘예루살렘 예수행진2004’를
앞두고 두려움을 설교

‘예루살렘 예수행진 2004’라는 이름으로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이 뜻을 모았고 이스

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행진하고자 한다. (자세한 사항은 www.jerusalem2004.net 참조)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인해 선교의 어느 부분이 주춤해지고 다시 때를 기다리는 현재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각지 교파에서, 각 방송에서도 한 번씩 비판하며 이들을 말렸지만 문화곤 목사와 이 모임은 굳힐 줄 모른다.

문화곤 목사는 이에 대해 주권에 대해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

도했으나, 세상주권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깨달았다고 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죽음을 각오한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문화곤 목사는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두려움은 역사를 증지하게 하려는 것임을 전한다.

두려움은 손을 약하게 한다.

즉 회의가 생기면 역사는 증지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가 없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 두려움은 범죄케 한다.

거짓말을 하게 하여 멈춰 설 수 밖에 없게 한다.

두려움이 생길 때 느헤미야처럼 즉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또 구체적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

‘저들의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은 각자가 다른 소명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

은 동일하며 내 안에 두려움이 무언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생기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도록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뢰는 기도를 올렸다.

셋째 주일은 청년봉사주일

“주님의교회와 장기 계약이라도 해야겠어요”

청년 1부에는 7월 셋째 주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6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이번 참가 인원은 20여 명 정도이며, 예배 이후 봉사활동을 원하는 지체를 중심으로 모듬을 만들어 활동한다.

현재 청년 1부와 연결되어 있는 단체는 ‘신아재활원’ (거여동 소재)과 ‘다일천사병원’ (청량리 소재) 두 곳이며, 앞으로 참가 인원이 늘어나면 더 많은 단체와 연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재활원에서는 정신지체 환자분들의 산책 도우미를 맡아서 그분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말벗이 되어준다. 병원에서는 건물내부 청소를 하거나, 저녁 배식을 돕는다. 후원으로 운영되는 두 단체의 특성상 월급을 받는, 유급 직원을 최소화하여 자원봉사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이런 일은 꼭 필요한 도움이 되고 있다. 청년들의 손길에 대한 단체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단순히 생계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신하는 자세로 진행하고 있어 봉사활동에 매우 고마워한다. 병원의 한 간사는 ‘주님의교회와 장기 계약이라도 해야겠어요.’ 말한다. 이런 마음으로 교제를 이루어 그 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에 대한 기쁨과 은혜를 온전히 느끼도록 하고자 한다. 동시에 청년들은 배운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얻고, 예수님의 사랑을 닦으려는 열정을 꾸준히 키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안의 예배를 벗어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에 더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기도 등의 후원이 지속된다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리라 본다.

의료선교팀장 서준규 집사에게 듣는다

이번 선교는 장기선교를 위한 적극적인 방향 얻을 터



‘새 영을 부어 주소서’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 2004 캄보디아 단기선교단은 캄보디아 추과 바탐방 2지역을 8월 1일(주일)부터 8월 8일(주일) 7박 8일 일정으로 다녀오게 된다.

캄푹팀은 29명, 바탐방팀은 26명으로 조직되었다. 캄푹팀 지도목사는 이호목사이며 내과팀장은 박호길집사, 소아과팀장은 김학원 집사, 총무는 김광일 집사, 외과팀장은 김기경 집사, 치과팀장은 방치웅 집사, 한의팀장은 황의완 집사, 약무팀장은 오경선 집사, 접수팀장은 임경희 집사, 선교단장은 권오승 장로, 지원팀장은 이진원 집사이다.

바탐방 지도목사는 정영환목사이다. 총무는 박근호 집사, 외과팀장은 박일영 집사, 소아과팀장은 유승화 집사, 치과팀장은 변춘석 집사, 약무팀장은 김성희 집사, 접수팀장은 변아영 집사, 문화팀장은 장일형 집사, 지원팀장은 김윤희 집사등으로

구성된다. 7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의료선교팀 회의는 오후 2시가 넘도록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었다. 회의 중 시간을 틈내 의료선교팀장 서준규 집사와 짧은 인터뷰를 가졌다.

1. 의료선교가게 된 동기

2001년부터 나가기 시작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원하고, 해외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와 교인들이 주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매년 나가고 싶다. 올해 단기선교는 장기선교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로 정보를 얻고자 한다.

현재는 base를 확보한 상태라 볼 수 있겠다. 병원을 짓는다든지, 그 쪽 병원에 연결되든지, 교육이면 학교와 연결되는 것 등이 전환이 될 수 있겠다. 병원을 짓게 되면 지속적인 장기선교로 주님의교회 뿐 아니라 타 교회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2. 캄푹, 바탐방 두 곳으로 가시는데 각각의 특색

캄푹은 주님의교회에서 파견하여 8년째 선교하시는 이선민 선교사가 있는 곳이다. 오래 전부터 교회와 communication이 되고 있었다. 바탐방은 윤은성 목사의 부친 윤구행 목사가 사역하는 곳으로 올해 요청을 받아 처음으로 가게 되어 우리도 궁금하다. 바탐방은 태국국경에서 가깝고 캄보디아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이다. 프랑스와 태국의 영향을 받은 특색을 지녔다. 캄푹은 캄보디아에서 3번째로 크며 근교에서 1시간 들어가면 우리가 가게 될 축지역이 나온다. 남쪽바다와 가깝다.

3. 의료 이외에도 미용, 아트, 문화 선교도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설명

풍선아트 전문인이 몇 분 가신다. 진료 기다리는 분들에게 아트를 하면서 의료를 지원해주어 교회도 알리게 될 것 같다. 바탐방에서는 청년 6명이 추가 참여하여 예배에 있어 찬양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해 줄 것이고 어린이학교로 문화선교도 하려 한다. 미용은 축지역에 두 명이 참여한다.

4. 이전 해외선교와 비교해 예전보다 발전된 내용

2개 지역 동시에 선교를 가게 되어 규모가 커졌다. 문화선교는 소규모지만 청년부 위주로 추가된 것도 들 수 있겠다. 내용적으로는 진단을 강화했다. 초음파기계를

이용해서 영상진단을 한다.

에이즈 감염성 질환 진단기구를 가져가 감염진단을 시도한다. 아직 어느 팀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선교에 있어 처음이 될 것 같다. 역학조사에 가까운 진료도 계획 중이다.

또 이번 선교는 장기선교를 준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당회 장로들과 함께 가고 문동학 목사도 잠시겠지만 처음 담임목사와 함께 한다는 것도 의의가 있다.

5. 이번 선교가 중점적으로 전개되는 방향 설명

이재철 목사는 교회를 세우고 임영수 목사는 공동체로 행함에 대해서 강조했고 문동학 목사는 주님을 번식시키는 것으로 한데 어울려가고 있다고 본다.

주님의교회가 모델이 되어 다른 곳에서 번식시키는 사역의 장소로서 캄보디아가 과연 적합한가 알아보고 미리 쭉여보아 그런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다. 장기선교와 같은 맥락이다.

6. 마지막으로 팀장으로서의 각오나 하고 싶은 말을 써주세요

몽골, 캄보디아에 많이 나가고 있다. 선교 통해, 팀을 통해 우리 교인들이 나눔의 주님을 더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한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교인이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전해주고 싶으신 것 있으면 알려주었음 한다.

많은 분들이 머물러 있지 말고 바깥으로 그중 먼 쪽에, 가족을 떠나 국내외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한다. 주님의 일을 할 바에는 선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되었음 한다.

1. 주일 점심 국수봉사 안내

주방 대청소와 소독을 위하여 오늘과 8월1일 주일은 국수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설만한 물가 휴점 안내

7월26일부터 8월21일까지 설만한물가는 하계휴점합니다.

3. 안수집사회 정기총회

안수집사회 정기총회가 오늘 1시30분, 5층 찬양연습실에서 열리며, 임원선출을 비롯 안전토의가 있을 예정이고, 총회 후 다과 및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1면에 이어서)

청년, 8월의 중국선교위해 기도로 시작

특별히 가는 선교지가 매우 민감한 지역이라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고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마음을 모아 통성기도를 올린다.

매주 5일 모임 중 최소 두 번씩은 참여하도록 하여 월수반, 화목반으로 나누고 전체가 토요일 오후 3시에 모여 기도회를 갖게 된다.

아직 선교일정이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로 토요일 중국선교사가

방문하여 자세한 일정과 준비사항을 전달받게 된다.

7월 25일 주일 중국비전트립팀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예배시간에 따로 특송을 준비했다.

또 선교후원을 위해 헌금함을 마련했다. 청년들은 성도들의 협력과 중보로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한다.

(1면에 이어서)

또한번의 여행을 소망하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모인 우리들은 이창현 목사님의 유창한 달변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알

고 있었던 내용들이 연결되었고, 성경을 보는 시야가 넓어짐으로 인해 폭넓고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

평면적으로 보이던 성경말씀이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보이게 되었으며,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양수리와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교제를 통하여 친밀함이 더하여 갔고,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되었으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끝으로, 우리는 바IBLE 네비게이션 성경공부를 통하여 누렸던 우리의 기쁨을 더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이구동성으로 바라고 가을학기에 구약성경으로의 또 한번의 여행을 소망하고 있다.

(1면에 이어서)

태백 항지 중앙교회로부터 온 편지

매달 둘째 토요일에 열리는 아나바다 장터는 이제 태백주민들의 잔치처럼 되어가고 있으며 멀리 정선이나 도계에서도 알고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향후에는 저희 희망의 살터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시민들의 잔치마당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바다 나눔장터 사업은 이 지역의 많은 빈곤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태백시민들에게 재활용을 통한 환경사랑과 절약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얻는 수익금은 이 지역사회의 사회선교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사업은 동참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고 또한, 그 속에서 모든 성도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

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나바다 나눔장터는 단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자원을 살리는 생명운동이며 모두가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정성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주님의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귀 교회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1면에 이어서)

5교구 수련회를 다녀와서

우동운 목사님께서 여는 예배를 통해 지체에 대해 설교하시고 저녁 예배때는 나 무된 예수님과 가지 된 우리들에 대해 설

교하셨다. 교구식구들은 서로 간에 "당신은 지체입니까?" "당신은 가지입니까?" 라는 인사를 나누었다.

둘째 날은 아침 7시에 목상으로 일과를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다섯 가지로 진행되었다.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물건들, 가치들은 무엇인가, 무엇을 잃었을 때 나에게 큰상실감이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개별적으로 빗속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조별로 짧은 연극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비록 준비시간은 짧았지만 좋은 내용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고 교구원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신체장애우의 간증을 듣고 그의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 주님께 감사 드렸고, 또한 건강한 몸을 가진 저희들은 그 큰 축복을 망각하고 그저 당연하듯 살고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목사님의 인도로 닫는 예배를 드리고 내

년 여름을 기약하며 5교구 수련회를 마쳤다. 한국으로 이사와서 처음으로 참석한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모던 교구식구들을 많이 사귀고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장마비로 인해 계획했던 것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셔서 친교를 나누고 같이 은혜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 cafe.daum.net / PCLBOOKS

4. 설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대이프,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10시~오후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